

AI·메타버스... 국내 최대 어린이 융·복합시설 새 단장

ACC재단, 어린이문화원 재개관 관람객 친화적 공간 확충 '눈길' 서비스 강화로 이용 편의 증대 "내년에도 일부 공간 리모델링"

국내 최대 규모이자 독보적인 면모를 갖춘 어린이 융·복합시설이 새 단장을 마쳤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융·복합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개편한 ACC 어린이문화원을 지난 17일 재개관했다.

이날 열린 프레스토어를 통해 시설을 둘러보니 노후화된 공용 공간 개선과 관람 동선 개편으로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엿볼 수 있었다.

●관람객 친화적 공간 조성

이번 어린이문화원 개편은 2015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공용 공간과 이용 환경을 개선해 관람객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안내·매표·물품대여를 로비 중앙에 통합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대했고 관람객 수요를 반영해 이동 동선에 따라 아기침대, 물품보관함 등 편의·휴게 시설도 확충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맞춰 어린이문화원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신규 개발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 시스템도 구축했다. 새롭게 개발된 안내 시스템의 디자인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ACC의 건축과비전의 상징인 '기억의 빛'을 모티브로 창의성, 예술성 등 어린이문화원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어린이 상품이 한 곳에... '들락지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 들어서면 ACC 어린이상품점 '들락지키'가 눈길을 끈다. 이번 재개관으로 어린이문화원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연계 상품이 진열돼 있고 아시아 스토리 기반 그림책도 접할 수 있다. 특히 ACC어린이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을 활용한 교구재와 놀이, 문구, 도서 등이 비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아시아 문화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과 첨단기술의 융합... '와글와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는 ACC가 보유하고 있는 책 5만여권 중 2만여권이 자리한다. '와글와글 도서관'이란 이름은 기존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즐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소리를 배려한 의미로 탄생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닌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투명 OLED 미디어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짝반짝

이야기'에서는 SK텔레콤의 답러닝 기술을 이용해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일기를 창작하는 특별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그림책 세상을 체험전시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재개관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책 체험전시 콘텐츠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을 선보인다. ACC재단과 3D 융합콘텐츠 전문기업 ㈜인디고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체험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공동 기획한 체험형 콘텐츠다. ACC재단이 발간한 그림책 5권 속 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해 △호수 속 여왕의 장신구 찾기 △구름 친구로 변신해보기 △암각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그림책과 자율위크숍으로 전시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메타버스로 떠나는 아시아 문명탐험... '어린이체험관'

어린이체험관에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ACC CHILDREN LAND)'이 마련됐다. 이 체험관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온·오프라인 동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메타버스 속 3D 아바타를 통해 아시아 문명을 학습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식과 문명' 전시와 메타버스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미와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

은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한 부모들이 늦게 태어나지 못해 후회할 만큼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배우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은 어린이문화원의 세계화와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ACC, 공적개발원조 사업 통해 라오스 문화유산 보존·전승

바이란 도록 2종 출판 지원 라오스서 낭독 영상 시연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라오스 문화부와 지난 17일 라오스 국립박물관에서 라오스 바이란 도록 출판기념회와 바이란 낭독(고어에서 라오스 현대어로) 영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CC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ACC는 최근 라오스의 귀중한 기록유산인 바이란(패엽경, 貝葉經) 도록 두 권인 '에메랄드 불상 이야기'와 '프라방 불상 이야기'를 현대 라오어로 최초 완벽해 출판했다. 라오스는 상좌부 불교가 전승되는 국가로 불경과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를 야자수 잎 등에 기록해 왔는데 이를 '바이란'이라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17일 라오스 국립박물관에서 바이란 도록 출판기념회와 바이란 낭독(고어에서 라오스 현대어로) 영상 시연회를 가진 뒤 라오스 문화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CC 제공

다. 이번 도록은 전자책 형태로도 출판돼 ACC와 라오스 문화부가 함께 구축 중인 '라오스 문화포털(<https://hub.laos-culture.org/>)'에서 내려 받기 후 읽을 수 있다.

이번 성과는 ACC가 추진 중인 공적개

발원조 사업 중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개발 역량 강화 지원'에 해당한다. ACC는 올해로 3년째 라오스의 주요 문화기관들과 협력해 문화·자연·기록유산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박찬기자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공연

창립 527주년 '빈 소년 합창단' 내달 17일 ACC 예술극장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새해를 맞아 520여년의 역사를 지닌 '빈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17일 ACC재단에 따르면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공연이 다음달 17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개최된다.

내년 창립 527주년을 맞이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와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소년 시절 빈 소년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모차르트가 지휘자로 함께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ACC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익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슈트라우스포에버

(Strauss For Ever)'를 주제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들과 함께 로베르트 슈만, 펠릭스 멘델스존, 프란츠 슈베르트, 요하네스 브람스 등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스위스 민요와 크로아티아 민요 등 세계 전통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인 단원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단원들이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불러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소년 소프라노들이 파랑새처럼 따스하고 기품 있는 음색으로 관객들을 만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명성의 합창단 공연으로 힘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CC 신년음악회 관람권은 R석 6만원, S석 4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https://www.accf.or.kr>)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박찬기자

전시로 만나는 80년 5월 '민족민주화 대성회'

전남대박물관서 내년 1월3일까지

1980년 5월 '민족민주화 대성회'의 역사적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다.

18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기원 작가 개인전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

여'가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를 기리는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했던 진실의 현상이 캔버스, 찢겨진 나무합판, 종이 상자 위에 실험적이면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한 김남주 시인이 박관현 열사에게 바친 헌상시 '한 사람의 죽음으로', 활자가 아닌 묵상의 흑백 이미지로 보여준

다.

이기원 작가는 조소와 회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민중미술 작가로,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아픔을 조형예술로 녹여내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정금희 전남대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가 45년 전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광주와 박관현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현재에도 뜨거운 울림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기자



전남대박물관에서 열리는 이기원 작가 개인전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여' 포스터. 전남대 제공